

대학 신입생을 위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

Effects of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박은민, 박미랑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Eun-Min Park(empark@dsu.ac.kr), Mee-Rang Park(meerang@dsu.ac.kr)

요약

본 연구 목적은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시행 후 리더십 생활기술,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변인에 대한 효과의 남녀 차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은 이주희 등(201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지침서를 토대로 사용하였다. 본 프로그램 구성은 대학에서 교양강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3회기로 이루어져 있고, 매 회기는 강의 20분과 구조화 집단 활동 프로그램 80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대상은 D대학교 2012학년도 전체 신입생이다.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설문지 6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쌍(pair)을 이루지 않거나 누락된 것을 제외한 325쌍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처치 효과 검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고,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상담효과를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종결 회기에 참여자들이 의미 있는 활동과 이유를 개별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사전-사후 검사결과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리더십 생활기술,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으며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경우 남자 신입생에게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여자 신입생들에게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질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할 시간을 갖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명확히 하여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은 대학생 신입생들의 리더십 생활기술, 자아 존중감,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 중심어 : | 대학생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 리더십 생활기술 | 자아존중감 |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This program based on the book written by Lee et al.(2012) to improve leadership for university student. This program consisted of a total of 13 session and every session consisted of 20 minutes lecture and 80minutes activity program. The researcher carried out the pre-test, post test and followed up paired *t*-test using spss 18.0.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of leadership life skills on total scores and sub scores, and reported significant improvement of self-esteem and relationship empowerment. Finally the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helped improving the leadership life skills, self-esteem and relationship empowerment.

■ keyword : | University Student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 Leadership Life Skills | Self-Esteem | Relationship Empowerment |

1.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은 전문분야의 실력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이 확고하고, 집단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성과 리더십을 겸비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리더십은 대인관계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성장과정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역량으로서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발달시켜야 할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자아를 탐색하고 미래 비전을 확립하는 자아정체감[1-3]을 형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시제도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실상 우리사회에서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리더십 역량을 갖추기 위해 현실적으로 적합한 시기는 대학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 후기의 발달단계에 해당하는 대학 시기는 바람직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을 확립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을 개발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대인관계의 폭도 넓어지게 되며, 다양한 갈등과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갖고 올바른 인생관을 설정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 역량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리더란 많은 사람들의 사고와 감정, 행동에 의미심장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을 말한다. 리더십이란 그런 영향을 미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4]. 리더십은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학습을 통해 누구에게나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관점이 최근 연구들에서 지배적이다. 이난(2005)과 김광수(2003)는 리더는 특정한 배경과 자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훈련에 의해서 습득된다고 하였다[5][6]. 이 점에서 대학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개발은 대학교육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요구되는 인재의 인성과 리더

십이 요청되는 데 따른 대학의 교양교육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서, 특히 리더십 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지만 리더십 관련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나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이다. 이난(2005)이 1990년 이후 발표된 리더십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연구와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 논문들은 미흡한 실정이다[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엄태민(1997), 김미영(2010), 김봉환과 이성옥(2008), 박현주 외(2005), 정은실과 박애선(2005), 정태희(2005) 등의 소수의 연구들만 찾아 볼 수 있다[7-12]. 따라서 대학생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앞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양질의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 대학 교양교육 과정의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난(2004)의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리더십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더십의 하위영역인 의사결정 기술, 인간관계 기술, 학습능력 기술, 조직관리 기술, 자기이해 기술, 그룹활동 기술에 있어서도 모두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혜경(2009)은 리더십 생활기술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리더십 생활기술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허정철(2011)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자아성장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15]. 리더십 교육프로그램들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여주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많지만 대학생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남녀 간 효과 차이에 대한 논문은 거의 드문 실정이며 리더십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며 그 성과들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리더십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한 황미영(2009)의 연구결과들 중 리더십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16]. 조경순과 이신자와 김호원(2004)은 리더십 성차는 리더십 특성과 행위에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며 남성 리더십이 여성 리더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경미와 김정섭(2008)의 연구결과에서도 대학생 성별에 따른 리더십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의 하위요인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그룹 활동 기술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높았다[17]. 이러한 결과는 김현수와 이난(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며[18], 최창욱(2001)의 연구에서도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는 달리 김민정(2007), 윤지영과 백경숙(2007), Dormody와 Seevers(1994) 등의 연구는 여성의 리더십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0-22],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김혜숙 외(2005) 연구에서도 여성리더가 남성리더보다 자아존중감, 직업의식, 과제지향성 요인에서 높게 나타났다[23]. 이와 같이 리더십 남녀 차이에 대한 연구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4].

한편, 한신일과 정우식(2010)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리더십 특성과 인식과 실행간 차이 분석에서 리더십의 중요성 인식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25]가 나와 향후 연구를 통해 리더십과 성별 관계는 좀 더 명확히 밝힐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성차에 따른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리더십 생활기술,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세 가지 변인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각 변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리더십 생활기술이라는 용어는 Miller(1976)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26]. 최창욱(2006)은 “리더십 생활기술이란 실제 생활 속에서 리더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되어지는 생활기술의 자기 평가적이고, 조직과 관련된 부분을 의미한다”고 하고, Dormody & Seevers(1994), Morris(1996), Wingenbach(1995)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리더십생활기술의 개념을 토대로 최창욱(2006)은 “리더십 생활기술이란 경험학습을 통

하여 획득되어지는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유용하고,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26].

이혜경(2009)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이 중요하고 유능하며 가치 있다고 자신을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14].

엄미선(2003)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는 바람직한 자원들과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타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능력 습득은 대인관계의 변화를 야기한다고 보았다. 대인관계 차원의 변화는 권리주장, 허용의 한계설정, 도움 요청하기, 문제 해결, 자원의 접근, 비판적 사고의 증가 등 대인관계적 지식과 기술 습득을 의미한다[27]. 전종미(2011)가 정의하는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란 “소규모 집단 내 상호작용과 역동 안에서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데,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도와주고,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보았다[2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 대부분이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제한점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325쌍이라는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사전-사후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리더십 프로그램 효과의 일반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 대상 교양 교육과정에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교육에 참여한 대학생을 남녀에 따라 프로그램 효과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효과성 차이를 통해 향후 성별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리더십에 대한 개념은 한 개인이 타고난 리더로서 개별적 특성에 집중되어 정의하기 보다는 추종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에 여성적 특성이라 간주되었던 공감하고 배려하는 부드러운 자질들이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차에 따른 리더십교육이 다

른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김광수(2003)는 “리더십이란 리더, 팔로워, 상황의 세 요소에 의하여 얻어진 함수관계로서 어떤 상황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6]. 기존의 리더십이 남성중심의 개념이었다면 현재 요구되는 리더십 개념은 수평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여성적 특성들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리더십교육과 그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들이 요구되어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본 연구 목적은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이 성별 차이에 따른 리더십 생활기술,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성별에 따라 리더십개발 프로그램은 대학신입생의 리더십 생활기술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성별에 따라 리더십개발 프로그램은 대학신입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성별에 따라 리더십개발 프로그램은 대학신입생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어떤 활동이 가장 의미 있는 내용으로 기억되며, 이유는 무엇인가? 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D대학교 2012학년도 전체 신입생이다. 리더십개발 프로그램은 1학기 교양강좌를 통해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효과 검증은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설문지 600부를 배부하여 사전 질문지 455부와 사후 질문지 421부가 회수되었으나 쌍을 이루지 않고 응답이 미흡하거나 누락된 것을 모두 제외하고 325쌍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의 전공계열은 공과대학 71명, 의과대학 118명, 사회과학 40명, 보건복지 51명, 문화관광대 45명으로 총 325명이다. 연령은 18~20세가 279명, 21~23세가 28명, 24~27세가 27명이었다.

2.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 실시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은 이주희(2012)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지침서를 토대로 사용되었다[4]. 2008년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토대로 학생들의 평가와 피드백, 교양수업 시수 조정에 따라 2012년에 수정하여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이주희 외(2008)의 적응적인 인성특성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리더십과 관련되는 요인을 분석하고, 김광수(2003)와 문형남과 손기원(2007)의 리더십에 관한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구성 요소를 설정하였다[4][6][29]. 구성요소는 자기탐색 및 자기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공동체 의식 함양, 대인관계 기술,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 셀프리더십 등이다. 본 프로그램 개발자는 리더십 전공 교수 1인과 상담전공 교수 3인으로 문헌 고찰과 기초 연구를 통해 설정된 하위항목에 따라 프로그램의 각 하위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 후 이론적 기초 부분과 활동 프로그램으로 나눠 내용을 구성하였다.

3. 프로그램 내용 및 실시방법

이주희 등(2012)이 개발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하위주제는 리더십 이해, 자기탐색, 리더십 개발, 효과적인 의사소통 훈련, 팀워크 훈련, 대인관계 기술로 구성되었다[4]. 프로그램 실시는 본 연구자와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받은 강사 20명이 실시하였다. 본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은 교양강좌에서 25~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당 활동시간은 3시간에서 1시간 조정된 2시간으로 기초지식에 관련한 강의 20분과 구조화된 집단 활동 프로그램 80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프로그램은 13주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표 1.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구성내용

회기	주제	기초지식강의(30분)	활동 프로그램(70분)
1	리더십의 개요	리더십 이해 리더십 개발 및 필요성	프로그램 개요 및 진행방법 소개 리더십의 개념과 리더의 특성
2~3	자기탐색	자기발견 및 자기이해 관계속의 나에 대해 이해	나 돌아보기: 자화상 그리기, 나 소개하기 관계 속의 나: 보드게임을 통해 나 발견하기
4~6	셀프리더십	시간관리 자기관리	자신의 시간관리 점검 가상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7~9	효과적인 의사소통 훈련	감정표현과 나전달법 공감 맞추기와 이끌기	감정 이해하기 상황극을 통한 나전달법과 너전달법 맞추기와 이끌기 대화체험
10~11	팀워크 훈련	효과적인 팀빌딩 집단토의를 통한 합 의점 찾기	팀워크훈련 가치결정과 사실결정에 따른 해결을 위한 토론
12	대인관계 기술	갈등해결 및 대처방법	효과적인 갈등대처방법 찾기 위한 역할극
13	리더로서 의 나와 너	리더로서의 나와 너 종결식의 의미	리더로서의 자기평가 소감나누기

기초지식 부분은 참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집단 활동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개별 작업, 2인이나 3인 1조 작업, 6~8명의 소집단 작업, 혹은 전체 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매 회기 프로그램 종결 후에는 느낀 점을 후기 란에 작성하도록 하여 소감을 나누도록 하였다. 교재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워크북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실시장소는 대학의 일반 강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시에는 소집단 활동이 가능하도록 의자배치를 이동한 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개괄적인 구성 내용은 [표 1]과 같다.

4. 측정도구

리더십 생활기술

리더십 생활기술 향상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에 관한 측정은 Dormody(1995)와 Seevers(1995), Morris(1996), Seevers와 Dormody(1995), Seevers와 Dormody와 Clason(1995), Wingsenbach(1995)등이 사용한 리더십 생활기술 측정도구를 엄완용(2006)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30]. 이 척도는 리더십 생활기술의 하위영역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4문항, 자기이해 기술 5문항, 조직관련

기술 4문항, 인간관계 기술 5문항, 학습능력 기술 4문항, 자기이해 기술 5문항, 그룹 활동 기술 3문항으로 총 30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 생활기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 계수는 리더십 생활기술 전체 .87이고, 하위영역별로는 .73, .81, .60, .80, .75, .80, .75, .80, .69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가 1986년 수정 보완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s Self-esteem Scale)를 김충희(1995)가 수정한 측정도구 Cronbach's α = .834였다[31]. 이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긍정적인 문항 5개와 부정적인 문항 5개로 Likert 식 5점 척도이며 '절대반대'는 1점 '절대찬성'은 5점으로 점수범위는 10점에서 50점으로 되어 있다. 자아존중감 점수는 긍정적인 문항은 그대로 하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한 후 점수를 합하여 총 자아존중감 점수를 산출해 내었다. 신뢰도는 .92이다.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Parsons(1994)의 임파워먼트 결과 평가척도 EOA(Empowerment Outcome Assessment)를 엄미선(200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27]. 이 척도는 프로그램 개입 전후 임파워먼트에 관한 변화를 평가하고자 한다.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는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장적 행동의 증가, 보다 나은 문제해결 전략, 문제와 해결에 대한 적합한 비판적 사고 등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62이다.

5. 자료처리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처치효과 검증을 위해 SPSS18.0을 사용하여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리더십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리더십개발 프로그램 실시로 대학생들 리더십 생활 기술이 향상을 알아보기 위해 리더십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 검사에 대해 paired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프로그램 실시 후 리더십 생활기술 전체와 하위요인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사결정 기술, 조직관리 기술, 인간관계 기술, 자기이해 기술, 그룹 활동 기술 전체에서 유의한 향상을 나타냈다.

표 2. 리더십의 사전사후 검사 집단 내 변화(전체)

하위변인	사전검사 (n=325) M(SD)	사후검사 (n=325) M(SD)	t
커뮤니케이션 기술	3.56(.49)	3.73(.52)	-7.07***
의사결정 기술	3.40(.51)	3.58(.47)	-6.52***
조직관리 기술	3.38(.47)	3.56(.53)	-6.02***
인간관계 기술	3.72(.47)	3.96(.52)	-9.12***
학습능력 기술	3.34(.52)	3.49(.58)	-4.99***
자기이해 기술	3.44(.52)	3.64(.55)	-7.28***
그룹활동 기술	3.49(.52)	3.67(.51)	-5.43***
전체 리더십	3.48(.35)	3.67(.40)	-11.14***

***p<.001

남자대학생만을 대상으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실시로 참여이전의 행동과 이후의 변화가 얼마나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paired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프로그램 실시 후 리더십 생활기술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가 유의한 향상을 나타냈다.

표 3. 리더십의 사전사후 검사 집단 내 변화(남자)

하위변인	사전검사 (n=159) M(SD)	사후검사 (n=159) M(SD)	t
커뮤니케이션 기술	3.54(.51)	3.70(.54)	-4.21***
의사결정 기술	3.40(.54)	3.40(.55)	-4.56***
조직관리 기술	3.45(.48)	3.64(.55)	-4.35***
인간관계 기술	3.73(.48)	3.96(.57)	-5.94***
학습능력 기술	3.36(.56)	3.56(.61)	-4.27***
자기이해 기술	3.50(.53)	3.71(.56)	-5.29***
그룹활동 기술	3.53(.54)	3.75(.51)	-4.96***
전체 리더십	3.50(.37)	3.71(.42)	-8.17***

***p<.001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실시로 참여이전의 행동과 이후의 변화가 얼마나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paired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프로그램 실시 후 리더십 생활기술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가 유의한 향상을 나타냈다.

표 4. 리더십의 사전사후 검사 집단 내 변화(여자)

하위변인	사전검사(n=165) M(SD)	사후검사(n=165) M(SD)	t
커뮤니케이션 기술	3.57(.48)	3.76(.50)	-5.94***
의사결정 기술	3.40(.51)	3.56(.56)	-4.72***
조직관리 기술	3.31(.46)	3.47(.49)	-4.15***
인간관계 기술	3.72(.45)	3.96(.46)	-7.00***
학습능력 기술	3.32(.46)	3.43(.54)	-2.74**
자기이해 기술	3.38(.51)	3.57(.54)	-4.99***
그룹활동 기술	3.46(.49)	3.58(.50)	-2.78**
전체 리더십	3.45(.33)	3.63(.37)	-7.59***

*p<.05, **p<.01, ***p<.001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실시 후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이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paired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또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실시 후 남자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이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paired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중감 향상이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paired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검사 집단 내 변화(전체)

하위변인	사전검사(n=325) M(SD)	사후검사(n=325) M(SD)	t
자아존중감(전체)	3.52(.61)	3.66(.66)	-5.31***
자아존중감(남자)	3.56(.64)	3.69(.66)	-3.39***
자아존중감(여자)	3.48(.58)	3.63(.65)	-4.13***

***p<.001

대학생들이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향상이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화의 의미를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자 대학생들은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 후 대인관계 임파워먼트가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사전사후 검사 집단 내 변화(전체)

하위변인	사전검사(n=325) M(SD)	사후검사(n=325) M(SD)	t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전체)	3.28(.36)	3.34(.36)	-2.68***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남자)	3.24(.42)	3.38(.38)	-3.70***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여자)	3.32(.29)	3.31(.32)	.35

***p<.001

2. 상담효과와 질적 분석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상담효과를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종결 회기에 참여자들에게 의미 있던 활동과 이유를 개별적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가장 의미 있었던 첫 번째 활동은 2장 인생 그래프 그리기 활동이었으며, 두 번째는 3장 관계속의 나를 생각하는 활동이었으며 세 번째는 5장 명함 만들기과 자기 소개서 작성하기였다. 프로그램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을 주제에 따라 분류한 내용은 다음 [표 7]과 같다. 전체적인 주제군은 인생 되돌아보기, 나와 타인 이해, 미래 목표 설정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주제에 따른 구체적인 의미진술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 인생을 되돌아보며 미래 인생을 준비할 수 있었으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계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경험을 하였으며,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한 준비를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리더십이 향상된 요인이라 판단된다.

표 7.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문 분석

주제군	주제	의미 진술
인생 되돌아 보기	과거 인생을 돌아봄	과거를 되돌아 보고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미래를 상상해 봄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어서 좋았다.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	내 인간관계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타인을 알 수 있는 기회	친구들을 깊이 알 수 있었고 삶을 공유해서 좋았다.
미래 목표 설정	꿈 설정 기회	내 꿈과 목표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미래의 나 대비	미래의 나와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시행 후 리더십 생활기술,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변인에 대한 효과성의 남녀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리더십개발프로그램

은 남녀 대학신입생의 모두에게 리더십 생활기술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결과가 나왔다. 리더십 프로그램이 리더십 생활기술 전체와 하위요인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사결정 기술, 조직관리 기술, 인간관계 기술, 자기 이해 기술, 그룹 활동 기술 전체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리더십 프로그램은 성차에 관련 없이 남녀 모두에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성차에 관련 없이 리더십 생활기술은 남녀모두에게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리더십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리더십 생활기술 변인은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리더십 프로그램은 남녀 대학신입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성차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에게 자아존중감 관련 리더십 프로그램의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이난(2004)과 이해경(2009)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론을 보여준다[13][14]. 리더십이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성이 있으며 리더십 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가장 설명력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리더십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대학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교양교육과정으로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리더십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향상에 남자 대학신입생에게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여자 신입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향상에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보다 평소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관련된 변인을 개발시킬 기회나 역량이 부족하였는데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시킬 기회를 갖게 되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에 비해 여학생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역량이 프로그램을 통해 원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전검사 수치를 보면 남학생이 3.24이 여학생 3.32보다 낮은 점수였으나 사후검사 수치에서는 여학생은 3.31로 사전검사 점수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남학생은 3.38로 향상된 점

수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변인은 남학생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구결과 수치가 미미한 차이를 보여주므로 리더십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향상에 남녀 학생 모두에게 유의미한 프로그램으로 작용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아직까지 성별에 따른 리더십 차이를 밝히고자 한 선행연구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최창욱(2001), 윤지영과 백경숙(2007) 등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리더십 생활기술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20][22]. 반면에 박선경(2002), 진행래(2006), 박재영(2007) 등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리더십 생활기술 수준이 높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32-34]. 한편 이영구(2004), 이은경(2004) 등은 남녀 간에 리더십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35][36]. 이처럼 성별에 따른 리더십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일관된 결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리더십의 성장에 관한 연구들은 더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어떤 활동이 가장 의미 있는 내용으로 기억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2장 인생그래프 그리기 활동은 자신 인생을 돌아켜보고 미래를 계획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의미가 있었다고 응답 하였고, 3장 관계 속의 나에 대하여 생각하며 보드 게임하는 활동은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고 타인들을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고 하였으며, 5장 명함 만들기과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활동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명확히 알고 미래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대학 신입생을 위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변인에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에게 더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었고, 리더십 생활기술과 자아존중감 변인에 대해서는 리더십 프로그램이 남녀 대학생에게 모두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질적 분석을 통하여 가장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한 결과 리더십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 리더십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37]가 소규모 표본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본 연구는 325쌍의 대규모 표본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제한된 표본의 한계를 극복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프로그램 선행연구가 부족하며, 또한 성별 차이에 따른 리더십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은 더욱 드문 형편이고 연구결과들이 일관성 없이 각기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일반화시키고 보급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성별차이에 따른 맞춤형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여할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리더십개발 프로그램의 효과를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대규모 실증분석 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지만 외생변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분리하여 측정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이유는 실험대상이 600명 이상이기에 통제집단도 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동일 학교에서 동일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수행하다보니 일반화의 문제가 여전히 제약으로 남아있다. 또한 교양강좌 수강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표집대상이므로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자발적인 선택이기보다는 학점 이수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측정도구가 참가자 지각을 통한 자기평정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추후연구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관찰자 보고를 통한 분석 등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E. H.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1968.

- [2] 허정철,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8호, pp.432-441, 2009.
- [3] 김효정,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376-386, 2014.
- [4] 이주희, 박희현, 박은민, *리더십 개발*, 경기:공동체, 2012.
- [5] 이난, “대학생의 리더십 집단활동이 리더십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제6권, 제2호, pp.387-399, 2005.
- [6] 김광수, *대학생과 리더십*, 서울:학지사, 2003.
- [7] 엄태민, *대학생을 위한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8] 김미영, “대학생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제35집, 제1호, pp.239-256, 2010.
- [9] 김봉환, 이성옥, “대학생의 리더십 향상과 기초직업능력 개발”, 숙명리더십연구, 제8집, pp.35-62, 2008.
- [10] 박현주, 김민정, 임진, 엄혜련, “대학생을 위한 리더십향상 집단상담 구안 및 효과 연구”, 인간이해, 제26집,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pp.39-49, 2005
- [11] 정은실, 박애선,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집, 제4권, 한국심리학회지, pp.907-927, 2005.
- [12] 정태희, “셀프 리더십 교육이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과 자존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 제32집, 제1권, pp.223-248, 2005.
- [13] 이난, “대학생의 제 특성 및 자아존중감과 리더십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제25호, 원광대학교 학생상담센터, pp.105-125, 2004.
- [14] 이혜경,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자기존중감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제18권, 제3호, 한국간호과학회, pp.278-284, 2009.
- [15] 허정철,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pp.486-495, 2011.
- [16] 황미영, “리더십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부산교육학연구, 제22권, pp.125-154, 2009.
- [17] 윤경미, 김정섭, “대학생의 리더십 특성에 관한 연구-성, 학년, 사고양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7호, pp.319-345, 2008.
- [18] 김현수, 이난, “대학생의 리더십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제25권, 원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pp.167-181, 2006
- [19] 최창욱, *청소년 리더십생활기술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20] 김민정,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21] 윤지영, 백경숙, “아동의 리더십기술과 사회지적와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연구, 제51권, 제2호, pp.111-126, 2007.
- [22] T. J. Dormody and B. S. SeEVERS, “Predicting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among FFA members in Arizona, Colorado, and New Mexico,”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Vol.35, No.2, pp.65-71, 1994
- [23] 김혜숙, 윤소연, “남녀교수의 리더십 비교연구: 학생의 인식을 통한 교수 리더십에서의 성별차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0권, 제2호, pp.233-267, 2005.
- [24] 조경순, 이신자, 김호원, “성차와 리더십: 문헌적 고찰”,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제1호, pp.289-311, 2004.
- [25] 한신일, 정우식, “청소년 리더들의 리더십 특성과 이의 인식과 실행간 차이 분석”, 교육종합연구, 제8권, 제2호, pp.117-139, 2010.
- [26] 최창욱,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숙명리더십 연구, 제4집, 제2호, pp.21-53, 2006.
- [27] 엄미선, *자기용호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도시빈민의 임파워먼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28] 전종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에 대한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29] 문형남, 손기원, “한국형 리더십 과정 개발과 적용 및 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지혜인 리더십 과정’을 중심으로”, *숙명리더십연구*, 제6집, 2007.
- [30] 엄완용, *청소년 리더십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31] 김중희, *해의 귀국 청소년의 적응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32] 박선경, *청소년의 생활기술로서의 리더십 분석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33] 진행래, *초등학교 아동의 리더십생활기술 실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34] 박재영, *아동과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에 대한 개인적 변인 및 사회적 지지의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35] 이영구, *스카우트 대원과 일반 청소년의 생활기술로서 리더십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36] 이은경, *청소년 단체 활동 경험과 청소년 리더십 생활기술 관계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37] 박희현, “대학생을 위한 리더십 계발 프로그램의 효과”, *인간발달연구*, 제18권, 제2호, pp.1-20, 2011.

박 미 랑(Mee-Rang Park)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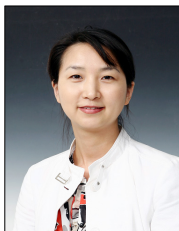
- 1995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7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인성 교육 ·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모교육, 교사교육

저 자 소 개

박 은 민(Eun-Min Park)

정회원



- 2001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8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상담